

탄자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

I. 일반개황

면적	945.1천 km ²	GDP	176억 달러(2008년)
인구	42.5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414 달러(2008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Tanzania Shilling (Tsh)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196.31 (2008년)

-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3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42.5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모잠비크 등과 접경하고 있음.
- 주요 도시로는 탄자니아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자 최대 항구도시인 Dar es Salaam(250만명), 행정수도인 Dodoma(170만명),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지역의 농업중심도시인 Mwanza(300만명) 등이 있음.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농업이 국가 GDP의 약 45%를 차지)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과 방대한 광물자원이 동국 성장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7.8	7.4	6.7	7.1	7.1
재정수지/GDP	-2.9	-5.1	-6.4	-3.4	-2.4
소비자물가상승률	4.2	5.0	6.7	6.4	13.5

자료: IMF, EIU

□ 7%대의 높은 경제성장세 유지

- 2004-08년 탄자니아 경제는 해외 원조자금을 활용한 도로·발전·항만 등의 경제 인프라 확대, 교통·호텔 등 관광 인프라 개선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빠른 성장, 금·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중심으로한 광업부문의 견실한 성장 등에 힘입어 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악화의 영향으로 FDI, 수출 및 관광수입(收入)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각각 4.5%, 5.0%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공공 인프라 건설 확대, 빈곤감소 프로그램 추진,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 등에 따른 꾸준한 지출 증가로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국내 세수기반이 열악하여, 재정수입의 40% 가량을 대외 원조 및 양허성 차관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2007-08년에는 GDP 규모의 증가와 정부의 재정수지 개선 노력으로

적자폭이 다소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2009-10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악화에 따른 원조국의 공여 감소 등으로 재정지출이 수입을 지속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3%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세, 그러나 '09년부터 안정될 전망

- 소비자물가는 그동안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와 국제 식량 위기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왔으며,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3.5%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국제식료품 가격 하락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가 한 자릿수로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식료품이 탄자니아 CPI의 50% 이상을 차지).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탄자니아는 도로, 항만, 전력 등의 경제 인프라가 열악하여,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미비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2007년 기준, 농업이 총 GDP의 45%, 고용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농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등의 농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강수량 등의 기후변화에 경제 전반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
- 주요 작물은 커피, 차, 면화, 담배, 캐슈넛 등이며, 최근 탄자니아 정부가 수출 작물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성장 잠재력]

□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 풍부

- 탄자니아는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전 국토의 약 10%에 불과할 정도로 광물개발이 더딘 상황이나, 사회주의적 광물 탐사 및 지질조사를 통해 취득한 광물자원과 지질구조에 대한 시추 자료가 인근 국가 대비 잘 정리되어 있는 편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금 4,500만 온스, 다이아몬드 2,000만 캐럿, 니켈 150만톤 등에 달하는 광물자원이 확인된 바 있음. 특히 최근에는 금광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와 맞물려 금이 탄자니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음.

□ 유전개발 노력도 활발

- 유전개발은 영국의 Aminex社와 Paladin Resource社, 캐나다의 Antrim Energy社, 브라질의 Petrobras社 등 개발회사들을 중심으로 잔지바르, 마피아섬 인근의 해상유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탐사작업이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경제성 있는 유전의 확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산업

- 탄자니아는 킬리만자로산, 응고롱고로 분지, 빅토리아 호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통, 호텔 등의 관련 인프라 미비로 인해 관광산업의 성장이 부진하였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이 총 GDP의 약 39%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 급신장하고 있음.

[정책성과]

□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 탄자니아는 현재 총 길이 10,300 Km의 주요국도 중 약 70%에 달하는

도로 정비와 3,000Km에 달하는 신규 도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도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 중임. 지난 도로건설 활동을 통해 다르에스살람, 모로고로, 아루샤 등 탄자니아 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있는 편이나, 지방도로의 경우, 10% 정도만이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해외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경제 구조 다변화 정책 추진

- 2005년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율로 출발한 현 키크웨테(Kikwete) 정부는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와 원조 유치를 통해 동국의 시급한 해결 과제인 각종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업·광업·관광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며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를 위해 Business Activities Registration Act를 개정하여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 소유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의 농업부문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시적인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World Bank는 2006년 탄자니아의 기업활동환경순위(‘Doing Business Index’)를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한 142위(세계 175개국 중)로 평가하고, Top 10 Best Reformer 국가에 탄자니아를 포함시킨 바 있음. 2009년 ‘Doing Business Index’에서는 127위를 기록하는 등 탄자니아에 대한 평가가 매년 개선 추세에 있으며,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6개국 중 14위에 해당하는 순위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589	496	589	617	760
경 상 수 지 / GDP	-3.2	-7.1	-9.4	-13.0	-15.3
상 품 수 지	-1,001	-1,319	-1,947	-2,634	-3,846
수 출	1,482	1,679	1,918	2,227	2,413
수 입	2,483	2,998	3,864	4,861	6,259
외 환 보 유 액	2,322	2,072	2,281	2,910	2,915
총 외 채 잔 액	7,805	7,780	4,198	4,382	5,353
총 외 채 잔 액 / GDP	69.0	64.2	33.8	30.6	30.5
D . S . R .	4.4	4.4	3.2	1.6	2.5

자료: IMF, EIU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기조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광업, 제조업, 통신업을 중심으로한 자본재 수입 급증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동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04년 GDP의 3.2% 수준에서 2008년 15.3%까지 꾸준히 확대되었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와 국제유가의 안정세, 제조업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각각 11.7%, 9.4%로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 상품수지: -19억 달러('06) → -26억 달러('07) → -38억 달러('08)
 - 소득수지: -93백만 달러('06) → -79백만 달러('07) → -29백만 달러('08)

- 서비스수지: 2.8억 달러('06) → 2.4억 달러('07) → 4.2억 달러('08)
- 경상이전수지: 5.9억 달러('06) → 6.2억 달러('07) → 7.6억 달러('08)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상황 개선 추세

- 외환보유액은 동국의 금 및 관광산업에 대한 꾸준한 FDI 유입에 힘입어 원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4년 23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에는 29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외채상황은 2001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대상국 중 최초로 Completion Point를 달성하면서 Bilateral Debt를 탕감 받은 데 이어, 2006년에는 G8 정상회담에서 결의된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프로그램에 의거, IMF, World Bank 및 African Development Bank로부터 받은 Multilateral Debt 24.3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 받은 바 있음. 이에 따라, 2004년 78억 달러(GDP의 69%)에 달하던 동국의 외채규모는 2008년 54억 달러 (GDP의 31%)까지 감소하였음.
- D.S.R.도 2004년 4.4%에서 2008년 2.5%까지 낮아지는 등 대규모 외채 탕감에 힘입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동국의 대외지급 능력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GDP: 124억 달러('06) → 143억 달러('07) → 176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33.8%('06) → 30.6%('07) → 30.5%('08)
 - 외채상환비율(D.S.R.): 3.2%('06) → 1.6%('07) → 2.5%('08)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혁명당 중심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 그러나 최근 국민의 지지 하락 중

- 탄자니아는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1964년 잔지바르(Zanzibar)와의 합병을 통해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을 출범한 이래 초대 대통령이자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니에레레(Nyerere) 대통령에서 현 키크웨테(Kikwete)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집권여당인 혁명당(Chama Cha Mapinduzi: CCM)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지속해왔음.
- 그러나 최근 민간부문 증진을 위한 법 개혁, 부패척결 및 민관 협력 증진 등과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명당 지도부에 대한 부패 의혹, 고인플레이션 현상 지속, 대통령의 국제행보 치중에 따른 국내 문제의 상대적 등한시 등을 이유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면서 2005년 집권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
- 지난 5월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혁명당이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50% 미만의 낮은 수준에 그친 바 있으며, 오는 2010년 대선에서도 재선을 노리는 키크웨테(Kikwete) 현 대통령이 지난 2005년에 기록했던 80%에 가까운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주요 서방 원조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

- 1970-80년대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던 탄자니아는 소련연방, 북한 등과 밀접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영국, 독일 등 과거 식민지 종주국과의 관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왔음. 최근에는 일본, 미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지난 5월에는, 키크웨테(Kikwete)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미 오바마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미국 방문기간 동안 두 정상은 아프리카의 빨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북동부 내륙 소말리아와 그 인근 지역의 해적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경제 원조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동아프리카의 협력 추진은 지지부진

- 탄자니아는 2004년 3월, 케냐 및 우간다와 함께 동아프리카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EAC)를 구성하였으며, 2007년 6월에는 르완다와 부룬디가 가입, 2011년까지 역내 관세 철폐를 목표로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역내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무역장벽 철폐에 대한 성과도 지지부진하는 등 EAC의 개혁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실정임.

2. 사회 및 소요사태

□ 잔지바르 분리 독립운동 지속

- 탄자니아는 대륙 본토인 탄가니카(Tanganyika)와 오만의 지배를 받아온 이슬람 성격이 강한 잔지바르(인구 약 1백만)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는 그동안 잔지바르의 내부 문제를 관장하는 자치 정부와 의회를 용인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화합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 독립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2001년에는 잔지바르섬과 펨바섬 일대에서 최대 야당인 시민연합전선(CUF)의 주도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군경의 유혈진압이 이어지면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인근 에티오피아 및 케냐로 이동하는 등 독립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

를 겪기도 하였음.

- 최근에는 잔지바르 내 군경의 주둔으로 인해 대규모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 시민연합전선(CUF)과 혁명당(CCM) 간의 평화회담(Muafaka) 개최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연합전선 지도부 내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어, 동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OECD : 6등급 (2007. 10) → 6등급 (2008. 10)
- o ICRG : 98/140 (2008. 6) → 91/140 (2009. 5)
- o I.I : 117/177 (2008. 9) → 113/177 (2009. 3)
- o Euromoney : 108/186 (2008. 9) → 114/186 (2009. 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o 미국 EXIM : 제한적 중·단기 인수가능
- o 영국 ECGD : 단기 인수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인수
- o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동국의 대외 의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및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를 통한 대규모 외채탕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약한 세수기반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등 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외채에 대한 동국의 대외 의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 · 탄자니아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6	2007	2008	주요품목
수 출	42,150	67,909	77,494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동제품, 알루미늄, 기호식품
수 입	8,014	2,868	9,669	
합 계	50,164	70,777	87,163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국교수립 : 1992년 4월 30일 (북한과는 1965. 1. 4)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05), 문화협정('06)

우리나라와의 2008년 교역규모는 약 87백만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77백만 달러, 수입은 동제품, 알루미늄, 기호식품을 중심으로 10백만 달러를 기록

해외직접투자(2009년 3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15건 6,316천 달러

V. 종합의견

- 탄자니아는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의 빠른 성장과 광물자원의 높은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경제 인프라와 농업 위주의 취약한 저개발 경제구조(농업이 총 GDP의 45%, 총 노동인구의 2/3 이상을 차지)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1인당 GDP가 400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최근 FDI의 꾸준한 유입과 광업 및 관광산업의 견실한 성장세에 힘입어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2009-10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 악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 제반 경제 지표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으로는 2005년 출범한 키크웨테(Kikwete)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야당세력을 중심으로한 잔지바르 분리 독립 운동은 여전히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있음.
- 상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국의 국별신용등급을 D1 등급으로 평가코자 함.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